

“先進國 경험살려 逆機能 최소화”

元 宇 鉉

〈高麗大 신문방송학과 교수〉

근래에 들어와 컴퓨터는 비슷한 정보처리기술과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류사회는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변혁의 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전달, 처리, 유통, 축적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정보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뉴미디어 개발에 따르는 기술의 변화는 종래의 재화나 에너지가 사회적 가치의 기본척도가 되었던 산업사회에서 정보나 지식이 기본변수로 변하는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기술과 사회의 단계에 대해 고찰하여 보면 기술결정론적 시각은 기술개발이 사회변화를 초래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결정론자들은 사회가 기술개발이나 기술사용을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윌리엄스(R. Williams)는 두 견해를 종합하여 기술은 사회적이라고 말한다. 즉, 단순히 컴퓨터나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기술개발이 현대적 정보사회를 초래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욕구가 병행해서 정보사회가 생성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베블린(T. Veblen)이나 오그번(W. Ogburn)과 같은 학자들은 종래의 이론들을 기술결정론적으로 전환시킨다. 그들은 기계문명이 인간생활에

널리 적용되기 시작한 근세이후부터는 기술이 사회질서의 결정요인이 되었다고 보고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주로 경제행위를 중심으로 한 기술의 영향을 주로 분석해왔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전제로 정보화 사회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따르는 사회적 영향을 주로 개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환경변화와 개인

개인생활환경의 변화 : 정보화사회에서의 변화의 영향은 주로 하부로 침투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생활환경에서의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여타 부분보다 가정생활 환경은 변화의 속도나 양에 있어서 느리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 빠른 변화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도 정보화 기기가 많이 실생활에 도입되어 이를 이용한 형태가 가정생활의 전부분으로 확대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될 수 있는 부분이면 모두 외부의 정보관련 산업과 연관되어져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가정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컴퓨터를 이용해 기계를 정리·분류·기록하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가계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많이 개발되어진 상태이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계활동의 담당자인 주부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질이 먼저 구비되어야만 한다. 또한 가정에 필요한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도 TV의 문자정보를 이용한 쇼핑 및 유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쇼핑, 그리고 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으로 언급되어질 수 있다. 홈쇼핑 및 홈뱅킹이 현실화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TV를 통한 문자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는 아주 조악한 형식이나 일본의 경우, 문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광고까지 활용화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의 발전은 급격한 상승이 기대되어 진다. 물론 홈쇼핑의 경우에는 상품자체의 속성 및 카드 대금결제의 보편화, 신용거래 등이 병행되어져야만 보급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이 부분에서의 발전은 아마도 주변 관련기업들이 수용자들의 마인드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지리라고 예상되어 진다.

정보화시대의 보편적인 기기는 아마 컴퓨터가 될 것인데, 컴퓨터를 가정생활의 모든 측면에 활발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 즉, 방범(Home Security)이나 검진등에도 활용되어질 것이고 최근 각 연구기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의료정보 축적 및 검진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개발은 완성된 상태이다. 이러한 연구단체의 개발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정과 네트워크화 되어진다면 가정의료 부문도 훨씬 발전하게 될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그 외에도 가정에서 예약을 컴퓨터를 통해 한다거나 증권정보를 보고 컴퓨터를 이용해 구매하는 등의 행동은 이제 먼 미래의 모습은 아니다. 지금 현재에도 공연장, 입장권의 예약, 항공권, 고속버스 등의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증권시세 정보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것

은 아직은 초보적인 보급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컴퓨터가 전가정에 연결되어진다면 쉽게 가능하게 될 부분들이다.

이렇듯 정보화사회는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편의가 이루어져 개인생활은 보다 간편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이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크나큰 갭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의식의 변화를 선도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가치관의 혼돈 : 지배적인 사회적 경향이 쇠퇴하고 새로운 사회의 지배적 의식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나는 부적응의 현상을 사회학에서는 '아노미(anomie)'현상, 개인적으로는 '일탈현상'이라고 지칭한다. 현재 산업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아노미현상'이 점차 만연되고 가시화되고 있다.

아노미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지배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과거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가치관인 '인·의·예·지', '충·효', '정신주의' 등은 이제 서구의 물질위주의 가치관에 의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사회의 합리주의나 물질만능주의, 이성주의적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에게 동화되지 못한 채 전반적으로 가치관의 부재현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부재 및 혼돈은 개인의 정체성의 위기마저 초래하여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범죄양상이 개인적 범죄보다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서 '비대상화', '비인간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신적인 가치가 쇠퇴하게 되어 물질에 우위를 두게되자 자본취득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치부되어 자본취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태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및 새로운 가치의 미정립은 미래 정보화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치관은 공유하는 다원화된 사회로의 전환과 전통적인 인간존중의 의식을 회복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커뮤니케이션 형태변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인 시간(Time)과 공간(Space)의 문제를 극복하여 왔다. 맥루한(M. McLuhan)은 모든 기술을 미디어라고 하면서 인간이 지금까지 발명한 모든 기술은 인간의 확장이란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의복은 피부의 확장이며, 타이프라이터는 손의 확장이고, 자동차는 발의 확장이며, 컴퓨터는 두뇌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술의 발달은 지금까지 대중매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케 하여 주제적 송·수신자로 자리잡는다. 그 결과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주된 특성은 상호작용(interactivity), 탈대중화(dimassified), 비동시성(asynchronous)이다.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고유한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내재하는 본질적 속성이다.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참여자가 보다 정확하게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큰 만족을 얻으며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지녀야 하는 바람직한 성격이다.

또한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불필요한 메시지 교환과 시간, 노력을 절약하게 한다. 탈대중화는 메스컴 시스템의 조절을 메시지 제작자가 아닌 미디어 사용자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어느정도 특정 메시지를 대중속에 있는 각각의 개인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비동시성은 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를 기초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비동시성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뉴미디어의 시간조정능력(Time Shifting Ability)은 수용자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정보환경변화와 사회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은 인간의 사회구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의 형성기원이 언제부터 시작하든지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 핵심구조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도래하게 되면 이러한 가족구조가 변화하게 된다. J. Naisbitts의 저서 Megatrends에서 이미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하는 가족구조에 대한 언급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이하면서 보편적인 가족구조가 된 '핵가족제도'가 이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한 가족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중에는 'DINK'라는 약어로 알려진 'Double Income No Kid'를 주창하는 집단도 있는데, 이 집단은 자식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되는 가족형태로서 부부가 전문직으로 수입을 많이 올려 보다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치중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또 'Yuppy'라는 약어로 지칭되는 그룹도 있는데 이들은 고소득자로서 소비지향적, 여가지향적인 그룹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형태외에도 독신자의 증가, 이혼자의 증가 및 복합적인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정보사회에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서구처럼 전통적인 가족유대가 적었던 나라들에서는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는 반면 전통적으로 가족유대가 강한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사회가 도래되면 '새로운 형태의 대가족제'가 나타나리라고 전망하는 사회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가족구조의 형태변화 뿐만 아니라 가족 내부의 형태도 변화하여 가정경제의 담당자가 가장에 한정되던 것에서 주부와 가장의 공동참여로 되어 가부장적인 권위는 많은 변화를 보이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가정내에 정보기기(Computer, Fecsimili등)가 도입되면 정보기기 이용력의 차이에 의해 이용능력의 갭은 확대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용력은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에 의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보화사

이 글은 지난 10월 19일 한국통신학회가 주최한 「정보환경변화와 사회생활」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이다. …………… <편집자 註>

회가 되면 이러한 이용력의 차이는 세대간의 대화 및 이해의 단절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육의 변화 : 농경사회나 봉건사회의 경우 교육은 가정위주로 이루어지며 관습이나 전통은 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어진다. 이 당시에는 특별한 독립교육기관이 필요가 없었고 종교기관이 대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도래하고 사회가 분화되어지자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교육기관이 등장하였고 여기에서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는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었다.

즉, 산업사회의 대량생산체제하에서 어느 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노동력의 공급은 학교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생산활동 종사자 보다는 일정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대량생산활동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다량화, 정보내용의 급변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생산, 처리, 보급을 전문으로 하는 정보활동자(Informaiton Workers)가 보다 강조될 전망이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보화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은 그 구조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활용가능한 매체로서 매스미디어의 대량보급과 컴퓨터의 등장, 컴퓨터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한 사회교육체계(Social Education System)로 변모해 갈 것이다.

즉, 학교라는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교육을 받

교육용 컴퓨터 보급계획

(단위 : 대)

학 교 급	89~90	91	92~96	계
국 민 학 교	28,000	16,409	113,516	157,925
중 학 교	7,389	8,508	60,289	76,186
일 반 계 고 교	1,736	3,875	27,993	33,604
실 업 계 고 교	1,722	1,845	17,306	25,090
교원연수기관	1,772	1,845	6,232	9,779
계	43,835	34,433	225,336	302,604

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해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고 교육기관이 학교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매체의 개발로 개인의 선택적인 접근에 의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변해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규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 보다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사회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정보화사회의 교육개념이 변모해 가리라고 본다.

또한 교육부문에 있어서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이다. 정보화사회가 되면 산업구조가 점차 자동화, 기계화 되어서 인간의 역할은 점차 단순직과 고도의 기술적으로 양극화되어지며 이에따라 실업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재교육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기술집약적인 선진국과 달리 노동집약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개발도상국인 우리는 더욱 정보화시대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는 학교 컴퓨터교육 강화방안과 함께 학교컴퓨터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교육용컴퓨터 보급계획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학교교육과 컴퓨터의 관계를 알아보면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지도(With Compter), 컴퓨터에 대한 교육(About Computer)교사의 지도 계획작성 및 학교경영지원의 이용등 세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와같은 교육을 통하여 학교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배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학교 컴퓨터교육에 대한 유의점은 첫째, 하드웨어의 양적팽창과 아울러 우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의 재작업화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컴퓨터교육은 학생들의 학습발달단계에 맞도록 도입·적용하여야 하며,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가치관, 윤리관 확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같은 정보사회에

대비한 교육은 교육제반의 과제는 아니므로 각계 분야가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화 : 어느 사회이건 그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조직이 있다. 이 엘리트조직은 그 시대마다 특성을 달리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나 튼튼한 신체를 가진 육체노동자가 엘리트집단이 되고 봉건사회에서는 군사력이 있는 기사나 제후가 그 사회에서의 엘리트집단이 될 것이다. 공업사회에서는 자본의 소유자나 정신노동자가 그 역할을 하는데 반해 정보화시대가 되면 각 분야에서의 전문가와 테크노크라트들이 엘리트집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살펴보면 고대사회나 봉건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지배계층에 의해 움직이는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산업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골격은 중산층이 많은 다이아몬드형 사회였다면, 정보화사회는 디스킬링현상(deskilling : 중간기술이 무용지물화되는 현상)에 의해서 소수의 전문직 기술자라든지 경영자와 이에 반대되는 단순노동자로 구분되어 밑에는 큰 삼각형이 있고 위에는 작은 삼각형이 있는 거꾸로 엮여 있는 듯한 철저한 이중사회구조를 이루리라고 전망된다.

사회계층의 변화 : 산업사회의 도래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마도 K. Marx일 것이다. 그는 산업사회는 필연적으로 계급대립을 초래하여 노동자에 의한 공산주의 독재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산업사회의 진행과정 속에서는 어느정도의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보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물질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자로 구분되어 계급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사회가 되자 정보처리에 관여하는 화이트칼라계층, 즉 중간계층이 보편적인 구성원으로 변모해 갔던 것이다. 이들의 속성은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으며 육체작업보다는 정신활동을 선호하

면서 안락한 경제적 생활을 누리고 여가를 즐기는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화사회는 계급화의 사회가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계층화의 사회가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간계층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교육기회의 보편화 및 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상제도의 정착등이 요구되어진다. 반면 이러한 낙관적인 시각에 반하여 오히려 계급관계로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도 하다.

그것은 정보화사회는 이제 물질이 아닌 정보에 의해 가치가 규정되는 사회이고 기본적으로 자본을 가진 자본가 계급이 새로운 정보를 소유하기가 쉬워 이제는 자본독점이 아니라 정보독점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시대에는 정보를 많이 가진 정보부자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정보빈자로 양극화되리라고 전망한다. 즉 물질소유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보소유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보의 독점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정보시장 역시 자유경쟁 체제하에 맡겨버린다면 정보사회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빈부격차의 모순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될수록 지금 현재의 정보화사회의 전문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정보단순처리자'의 범주로 전락해 버릴 우려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계층화보다는 새로운 경향의 계급화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 : 정보화사회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축적, 유통, 교환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기존하고 있는 매스미디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프라이버시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보화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있어서 컴퓨터는 프라이버시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보화사회에서는 국가나 기업 또는 단체가 엄청난 기억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저장하여 자신도 모르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윤리성의 문제로 대두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컴퓨터가 기록하고 있는 정보내용이 공공적이어서 그것에 대한 분석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들은 자신에 관련된 정보가 어떻게 수집·보관되어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자신에 관계된 데이터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다.

정부는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의 정보를 행정기관 상호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반기까지 완료할 것을 목표로 입력사업을 벌이고 있는 주민관리업무 행정전산망 사업은 그 입력항목의 방대함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은행은 은행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화한다는 명목아래 각 은행과 고객간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각 개인의 신용상태를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개발연구원의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조사연구”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53.1%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안고 있다라고 대답했으며 40%는 틀림없이 침해받게 된다고 답변하여 93% 이상의 국민이 행정전산망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밖에도 행정전산망을 관리하는 국가가 정보를 독점함에 따라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나 반드시 악용하게 될 것이란 응답이 89.6%에 이르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컴퓨터범죄 :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사회의 여러 시스템들은 대규모일수록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즉 정보사회에서의 컴퓨터 시스템에는 방대한 정보가 경제, 사회의 중추신경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 기능을 멈추던가 또는 혼란이 생겼을 경우 그 영향은 막대하다.

지금까지의 컴퓨터범죄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81년 미국방성의 정보 네트워크에 대한 학생의 프로그램 변조사건이다. 그 때 미국전역의 정보네트워크가 일제히 울려 소련의 핵공격에 대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다행히 컴퓨터의 자체 점검기능이 작동하여 컴퓨터 고장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었지만 어떠한 사유로 작동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핵전쟁의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의 컴퓨터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는 1973년 10월 강남의 AID 아파트추첨 부정사건이다.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속에 가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9세대분을 빼돌렸다. 1989년에는 한 은행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해 수험생의 시험점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컴퓨터 범죄가 일반화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컴퓨터 범죄가 기존의 변화와는 달리 그 범행자들이 죄의식을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또한 그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범죄가 많으며 범죄로 야기되는 피해액은 엄청나게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긍정적 부각을 위해서는 컴퓨터 범죄에 대한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의 격차의 심화 : 정보화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는 정보의 불평등 문제이다.

정보는 힘이며 돈을 버는 유력한 수단이다. 모든 기업의 활동이 우선 시장조사나 생산기술의 조사에서 출발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고도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을 구사함으로써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전쟁을 더욱 치열하게 한다.

그런데 뉴미디어는 정보의 부자(The Information-rich)와 정보의 빈자(The Information-poor)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기 보다는 더욱 더 확대시킨

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1970년대에 티첸너(Tichenor)와 도너휴(Donohue)의 공동논문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of Knowledge 에서 제시되었는데, 그들은 한 사회체계속에 정보입력이 증가할 때 각 계층의 인구중 사회경제적 위치가 높은 계층간의 지식의 격차현상은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원인은 뉴미디어의 불평등한 보급과 이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뉴미디어가 사회에 도입되더라도 그것이 모든 개인들에게 바로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보격차 또는 정보평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는 공공정책의 당연한 중요과제이다. 현실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정책은 정보격차를 조장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에 자유경쟁이 공동정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행되도록 허용된다면 뉴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불평등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를 별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뉴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정보의 집중은 전체주의와 심한 빈부의 차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론상 정부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정보의 엄격한 통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엄청난 정보통제 속에서 정보의 독점적 접근은 엄청난 힘을 줄 수 있고, 결국은 그 정보의 독점적 관리자가 사회를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정보화사회에서의 사회계층이란 관리자 계층과 피관리자 계층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같은 정보의 격차문제에 대해 김철수교수는 정보공개법시안을 제시한다. 그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료보호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 내용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등 행정기관은 정보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의무란 보다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보를 널리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제시되는 것은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와 통제에 대한 것이다. 사실 고도정보화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변동의 속도가 빠른 까닭에 그에 대한 여러 갈래의 대응 또한 체계적임이 요청되며,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해소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 공해의 문제 : 정보화사회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공급하여, 개인들은 의사결정에 넓은 선택이 폭을 갖는다. 그러나 인간의 정보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정보량은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 현상을 일으킨다. 그런 경우 인간은 정보에 대한 무감각현상이나 무기력상태를 초래하며, 환경적응능력을 상실한다. 또한 현실도피 경향이 조장되며 정치적 무관심등의 제반 역기능이 초래된다. 아울러 과도한 정보에 매몰되어 자기의 지적창조력을 발휘하는 일없이 정보에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영상등에 의한 2차적 정보가 증가하는 반면 인간을 직접 접촉해서 얻은 정보가 감소하기 때문에 간접적, 부분적으로 얻은 정보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 사회적 병리현상이 증가한다. 이같은 정보의 양적팽창과 함께 정보의 질도 문제로 대두된다. 이른바 정보의 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잘못된 정보나 부적절한 정보에 현혹되는 결과가 되고 질이 나쁜 정보는 아무리 집적해도 소용이 없다. 또한 정보에 나쁜 정보가 섞여 있으면 질 좋은 정보는 가치 그 자체를 잃게 된다.

이같은 정보화사회의 정보과잉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람들은 인간의 적극적, 창조적 지적 능력과 선택능력에 도움이 되는 가치교육은 받아야 하며 정보의 경제적 처리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판단 및 경제적 처리능력이 부족할 때 인간은 외소함과 초라함을 느끼면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할 염려가 있다.

요약 및 결론

정보화사회의 출현은 사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의 양면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현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화사회의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할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정보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개인, 사회, 문화 추이에 관한 기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환경변화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① 과거의 농업·산업문화와는 다르게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추세이다. 이는 가정에 컴퓨터 등의 정보화기기가 설치된 상태에서는 사회의 모든 변화가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곧바로 가정에 전달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기기의 일상화는 가정분위기 전반을 매우 편리하게 변모시킬 것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일들이 가능하여지고 많은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개인들의 여가시간은 삶의 질에 대한 가치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② 가치관과 변화를 들 수 있다. 사회변동의 급격한 흐름은 동일세대에게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의 가치관을 경험케 한다. 그 결과 각 개인은 가치관의 아노미상태에 빠져 가치관 부재 현상을 갖게 되어 가치관 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발달은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여 기계를 통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여 진다. 이같은 현상으로 사회일부에서는 개인의 주체적, 능동적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나타나 동종의 취향, 능력을 공유한 사람끼리의 대화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탈대중화 현상은 가치관의 규범이 개별화되어 사회가 규범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할 전망도 보인다.

다음으로 정보환경변화를 사회단위로 놓고 고

찰하여 보면,

① 가족구조의 변화이다. 가족생활은 그 형태와 습관면에서 대가족제와 핵가족제의 특성이 혼합하면서도 강도면에서 핵가족제인 경우도 부부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자손은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등 제3형태의 초 개인적 가족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② 교육형태의 변화측면에서 보면 정보화사회는 정보시스템의 발달로 기존의 집단교육제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교육은 개인중심적인 가치를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 크다. 개인위주의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세분화될 가능성이 크고 평생교육제도와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집중될 것이다.

③ 사회구조의 변화면에서는 산업사회의 특징인 중간계층이 역시 확대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반대 경향에 대한 예측도 있는데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정보화사회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정보기기가 단순화, 패키지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라 산업사회에서의 중간층인 전문가 집단이 자신들의 전문기술의 무용지물화에 의해 단순기능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작업구성은 고도의 정보처리기술사, 경영자 집단등의 상류계층과 단순기능집단인 하류 집단으로 나누어지며 소득의 불균형배분이 심화되어 그 결과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④ 정보화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정보가 컴퓨터에 수집, 저장, 유통됨에 따라 심각하고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어 질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국가나 기업, 단체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되어 컴퓨터에 저장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하게 이용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 개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⑤ 컴퓨터 범죄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컴퓨터 범죄는 심리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자가 기계를 통해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된다. 사회적 측면으로 보면 컴퓨터 범죄는 피해액이 여타 범죄에 비해 더 크다. 즉 심리적 가책없이 대형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가 사회의 중추신경으로 작용하고 또한 사회 각 부분의 정보가 집중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조작으로 인해 사회 전 부분의 마비가 가능하다고 볼 때 컴퓨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⑥ 정보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정보격차의 문제는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정보이용 능력의 차이와 정보추구의 동기화의 문제등이 있다. 동일한 정보를 소유한다 하여도 정보 파악능력, 재구성능력의 차이에 따라 정보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또한 컴퓨터와 연관된 정보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기계적 방법에 대한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보격차가 심화되어질 것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뉴미디어는 개인의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사회 전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공유될 수는 없으며 엘리트계층만이 먼저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엘리트계층은 더욱 많은 정보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⑦ 정보공해의 문제가 대두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를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에게 대량공급하여 개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 의사결정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정보량은 정보에 대한 무감각 현상이나 무기력 현상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환경적응 능력의 부족이나 현실도피, 사회적 무관심을 갖는 역기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정보의 조직, 처리, 통제하는 판단능력이 증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환경변화와 문화의 측면에서는, ① 매체문화의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전파문화와 인쇄문화를 융합하여 두 부분으로의 분리가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매

체문화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와 인간의 접촉은 특정한 성향의 인간의 창출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예를들면 Hacker(컴퓨터에 미친 사람)가 많아져 어느 정도의 친 Hacker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친 Hacker적인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개인적,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강한 반면 집단적, 지혜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

②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인간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이 기술적, 물질적 발달의 진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문화지체현상이 만연하게 될지도 모른다. 더구나 커뮤니케이션은 특수한 발달의 측면을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편적인 것으로 전파하게 될 수도 있다.

③ 정보화사회는 문화적 동시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문화는 폐쇄적일 수 없기에 다른 나라와도 상호교환되어진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채널을 통해 선진국의 정보가 후진국으로 일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경우 후진국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알맞는 고유토착문화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며 보편문화란 이름하에 서구의 문화가 일반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인해 일본의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CATV의 도입에 의해 외국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화적 동시화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보환경변화와 개인, 사회, 문화적 측면을 분석하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대응책은 이미 정보화사회 도입기에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정기능적인 측면을 최대화하여야 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간의 의지에 의해 미래는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세질서 새생활 복지사회 앞당긴다.